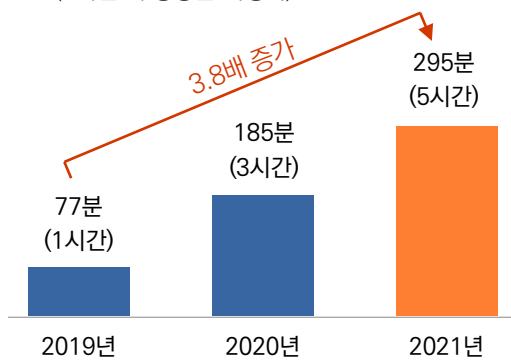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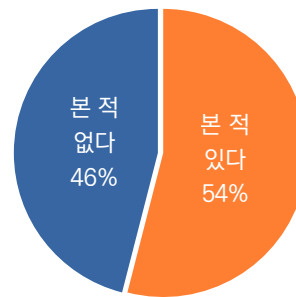
한국의 청소년, 영상물 하루 평균 5시간 본다

- ▶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'영상물 등급분류 인지도 및 청소년 영상물 이용 실태 조사'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하루 평균 영상물 시청 시간은 5시간(295분)인 것으로 나타났다.
- ▶ 2년 전 대비 청소년들의 하루 평균 시청 시간이 약 3.8배 증가한 것으로,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수업의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.
- ▶ 문제는 시청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유해 영상물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. 청소년들에게 '최근 6개월 내 유해 동영상을 본 경험이 있는지'를 묻자 청소년의 절반 이상(54%)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.

[그림] 청소년 영상물 하루 평균 시청 시간
(6개월 내 영상물 시청자)



[그림] 최근 6개월 내 유해 영상물 시청 경험
(6개월 내 영상물 시청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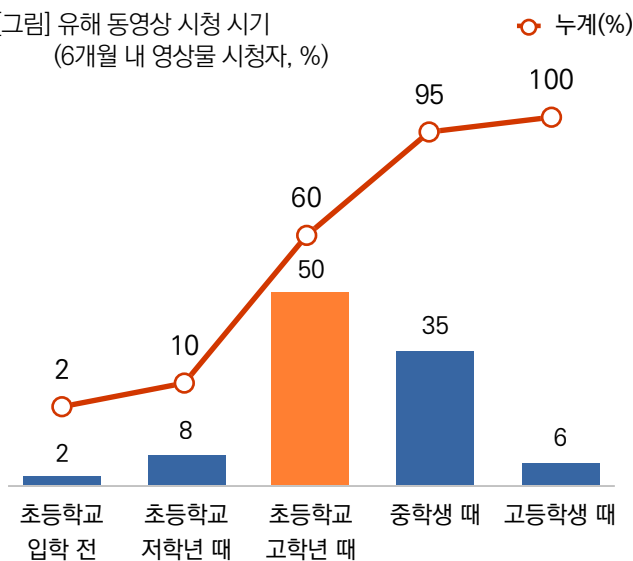


*자료 출처 : 영상물등급위원회, '영등위, 쏟아지는 영상물! 등급분류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한 시점' 보도자료, 2022.04.18.(영상물 등급분류 인지도 및 청소년 영상물 이용 실태 조사, 2021.06~12, 만10~18세 청소년 1,249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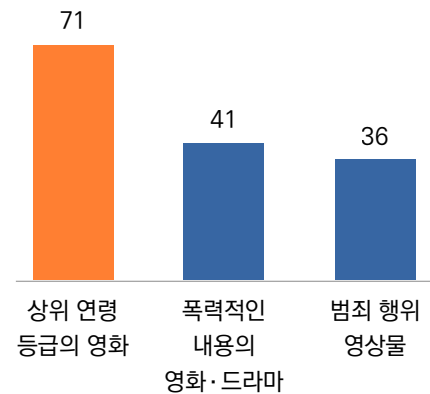
◎ 청소년의 60%, ‘초등학교 졸업 이전’ 유해 동영상 시청!

- ▶ ‘유해 동영상 시청 시기’에 대해 청소년 5명 중 3명(60%)은 ‘초등학교 졸업 이전’에 시청한 것으로 드러났다.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‘초등학교 고학년 때’가 50%로 가장 많았고, ‘초등학교 저학년 때’(8%)와 ‘초등학교 입학 전’(2%)도 10%의 응답률을 보였다. 그 외에 ‘중학생 때’라는 응답은 35%, ‘고등학생 때’ 6%인 것으로 응답됐다.
- ▶ 내용별로 살펴보면 ‘상위 연령 등급의 영화’가 71%로 가장 높았고, ‘폭력적인 내용’ 41%, ‘범죄 행위 영상물’ 36% 등의 대답도 눈길을 끌었다.
- ▶ 모바일폰을 통한 인터넷 접속이 용이해지고, 학생들의 ‘동영상 공유 플랫폼(유튜브 등)’ 및 ‘OTT서비스(over-the-top media service: 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·영화·교육 등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함)’ 이용률도 늘어남에 따라 청소년들이 ‘폭력적’이고 ‘범죄 행위’ 등을 다룬 ‘상위 연령 등급’의 영화에 노출될 가능성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.

[그림] 유해 동영상 시청 시기
(6개월 내 영상물 시청자, %)



[그림] 청소년들이 시청한 유해 동영상 내용
(중복응답, 6개월 내 영상물 시청자, %)



*자료 출처: 영상물등급위원회, 영등위, ‘쏟아지는 영상물! 등급분류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한 시점’ 보도자료, 2022.04.18.(영상물 등급분류 인지도 및 청소년 영상물 이용 실태 조사, 2021.06~12, 만10~18세 청소년 1,249명)